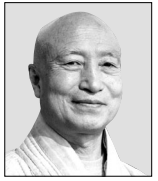


일주문



불교경영자 CEO과정 방문
덕숭총림 수탁사 방장 설정 스님은 12월 3일 서울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CEO) 고승초청법회에서 방문했다.



민추본 10차 월례강좌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지홍 스님은 12월 15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제10차 월례강좌를 개최했다.



땡큐뮷다콘서트
영종불교회관 주지 자명 스님은 12월 14일 논산훈련소 내 호국연무사에서 장병위문 '땡큐뮷다콘서트'를 개최했다.



군중특별교구지음금 기탁
서울 구룡사 주지 각성 스님은 12월 2일 군인들에게 전달할 헌책 지원금 1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지경기탁했다.



길상사 창건 17주년 기념법회
서울 길상사 주지 덕은 스님은 12월 14일 길상사 극락전에서 창건 1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12월 20일부터 1박2일간 월정사에서 청년대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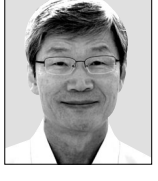
'행복' 주제 토크콘서트
헤민 스님은 12월 24일 오후 4시 수원 경기대 컨벤션센터에서 시골의사 박경철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법'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연다.(02)725-4277



기부자 명예의전당 조성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12월 12일 교내에 기부자 예우공간인 '명예의전당' 조성 제막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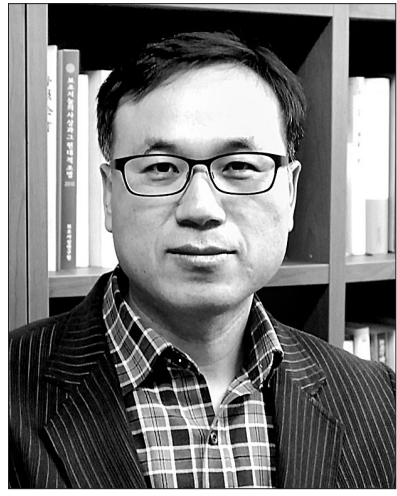
올해의 조경인상 수상
홍광표 동국대 교수는 12월 3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제17회 올해의 조경인 시상식'에서 올해의조경인상을 수상했다.



새해 철야 용맹정진 대법회
부산 새말구선원 춘당 이황우 선원장은 2015년 1월 1일부터 4일까지 새해 철야 용맹정진 대법회를 개최한다.(051)759-1097

“영호남 불교연구 중심처로 우뚝 설터”

이종수 남도불교문화센터 센터장



국립 순천대에 남도 최초의 통합 불교연구기관이 세워졌다. 바로 순천대 지리산권 문화연구원 산하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가 그것이다.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 이종수 센터장은 12월 10일 “지리산권문화연구원 산하에 설립되는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는 호남과 영남권을 아우르는 최초의 불교문화연구기관으로, 향후 순천 송광사,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등 삼보사찰과 구례 화엄사, 태고종 순천 선암사 등과 연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남도는 신라와 백제 불교문화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신라 구산선문종 다섯 개 산문이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수행결과와 대장경 판각지로 알려진 남해 등이 있는 한국불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이 지역 불교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습니다.”

이종수 센터장은 “순천대는 지역 거점 국립대로 남도불교문화를 연구하는 최적지”라며 센터설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수 센터장은 “그동안 지리산권문화연구원에서 HK사업을 수주해 진행하고 있

지역 거점 국립대에 설립 최초 의미

2015년 국제세미나 개최 예정

불교기록문화유산 DB구축 계획

는데 특히 불교관련 연구에 대한 요청이 있어왔다”며 “우선적으로 조선 중종 시대, 가흥 대장경이 남도 지역에서 유통이 된 사실과 그로 인한 영향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는 고문서와 금석

문, 불서 등을 조사하는 등 불교기록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남도 불교와 동아시아 불교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연구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이어 “19일 오후 2시 순천대 70주년 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리산권 불교문화의 위상과 연구과제’를 주제로 창립 기념 학술대회를 열어 2015년 가을에는 중국, 대만, 일본 학자들을 초청해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 창립 기념학술세미나에는 김용태 동국대 HK교수, 화엄사 효광 스님, 순천대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 이종수 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서 ‘조선 후기 지리산권 불교와 부후계’, ‘화엄사의 불교문화와 연구과제’, ‘지리산권 불교의 특징과 연구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계표, 조명제, 전병철 교수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간에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식도 진행된다.

이종수 센터장은 “국립대에서 불교연구기관을 발족한 것은 불교계 연구 지평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불교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명상 통해 삶의 주인이 되세요”

남양주 세심사에 명상수련원 개원한 무문 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림동문회장 무문 스님(사진)이 이끄는 명상 수련도량 '무문명상수련원'이 12월 8일 남양주 세심사에 문을 열었다.

남양주 세심사에서 열린 수련원 개원법회에서 무문 스님은 “명상을 자신과 만나는 한 방법”이라며 “명상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달라. 누구나 수련원을 찾아 염불과 명상을 함께 하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문 스님은 “명상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계도 명상을 활용한 포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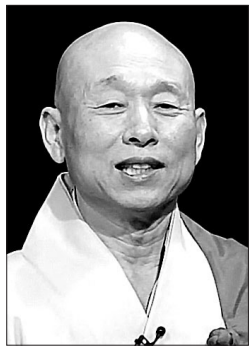
무문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림동문회장과 용산 보광사 주지를 맡아 자비나눔 실천과 도심포교에 앞장서 왔다.

무문 스님은 “명상 수행과 함께 자비실천도 함께 할 것”이라며 “특히 군포교는 불교의 미래로 청년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법음을 실천하도록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원법회는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림동문회 명예회장이자 하남 성불사 주지 학명 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섰으며 대중 150여명이 참석했다.

학명 스님은 “명상수련원은 방향하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가수 김홍국의 15번째 자비보시행

12월 13일 제15회 장학금 전달식

김홍국장학재단(회장 김홍국·사진)이 12월 13일 서울 이태원동 중식당 마오에서 제15회 김홍국장학재단 장학금전달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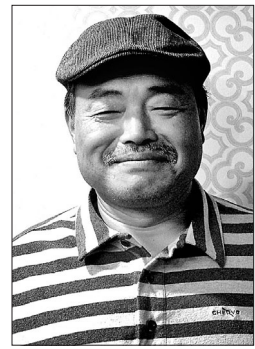
행사에서는 김현준 학생(화계초 6학년)의 9명에게 각 5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또 원로가수인 안정에 씨와 오기택 씨에게는 100만원의 성금이 전달됐다.

김홍국장학재단은 2000년 2월 26일 설립돼, 매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2014년 현재까지 초등학생 138명, 원로가수 7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김홍국 이사장은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십시일반 작은 정성이 모여 15번째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 앞으로는 15~20명 정도의 더 많은 학생들과 원로 선배님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원로가수들은 저에게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다. 그런 분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안타까워 장학금 전달을 갖게 됐다. 몇몇 선배님들은 장학금을 받고 눈물을 흘리시기 까지 했다. 해병대 선배인 오기택 선생님은 지금 병상에 있어 직접 찾아뵙고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홍국 이사장은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해 전국사찰 순회법회를 다니는가 하면 어린이 축구잡나무 육성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국민 803-21-0319328 (02)745-0306

이나은 기자



‘제11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불출협)가 주관하는 ‘제11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이 12월9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불출협은 ‘올해의 불서10’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제11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은 명법 스님의 <미술관에 간 붓다>(나무를 심는 사람들)가 우수상에는 김성철의 <붓다의 과학이야기>(참금세상)와 성낙주의 <석굴암, 법정에 서다>(불광출판사)가 각각 선정됐다. 상금은 대상 1000만원, 우수상 400만원이다. 정혜숙 기자

동국대 교직원, 학생들에게 장학금



동국대 경주캠퍼스 재직동문회(회장 고창택)는 12월 9일 경주시내 식당에서 2014학년도 정기총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경상학부 4학년 김경민 학생과 한의학과 2학년 양소은 학생에게 장학금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고창택 회장은 “재직동문회가 친목단체를 넘어 후배 학생들에게 면학 의지를 높이고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해 장학금 수여를 하고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저소득 가정에 겨울철 생필품 전달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12월 9일 중구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물품을 지원하는 행사를 열었다.

중국공상은행 후원으로 진행된 전달식에서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4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역 내 저소득가정에 전달했다. 전달행사에서 중국공상은행 직원들은 다양한 생필품을 직접 선물박스에 담아 2인 1조로 각 가정에 배달했다. 노덕현 기자

건강백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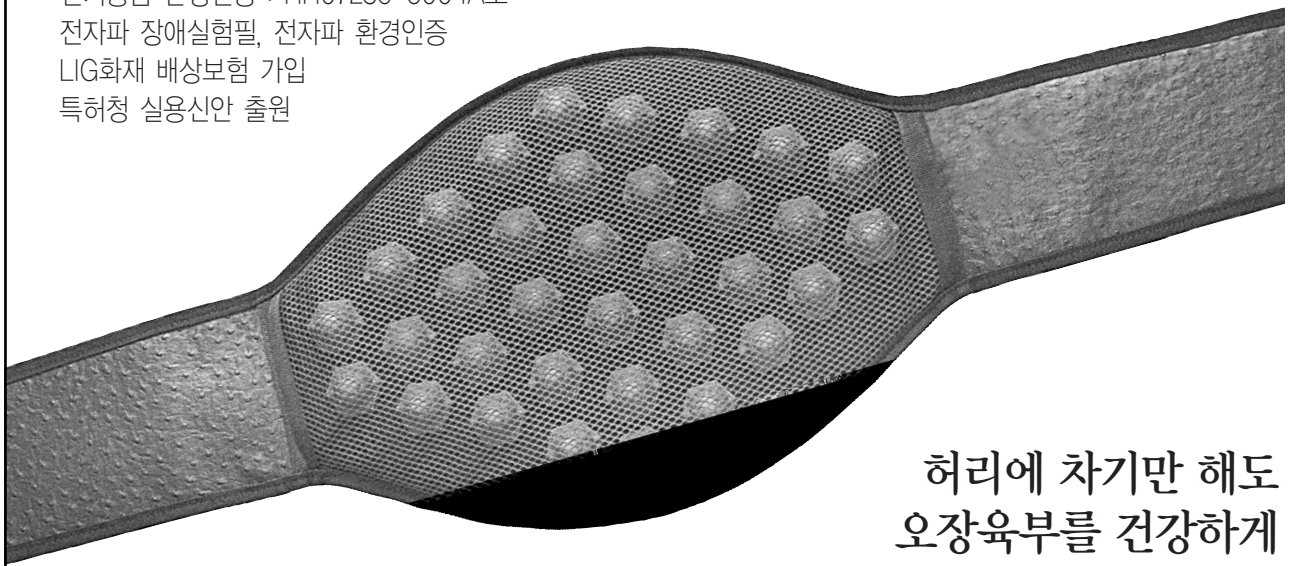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자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됨,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서냉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기,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